

CJ, 제약본부장 손경오 유한메디카 대표 영입

CJ는 8월8일 손경오(57) 유한메디카 대표이사를 부사장으로 영입해 그동안 공식으로 있던 제약사업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손경오 부사장은 서울고, 서울대 제약학과를 나와 1973년 유한양행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마케팅팀장, 약품마케팅 및 홍보담당 상무, 약품사업본부장(전무) 등을 지낸 뒤 2003년부터 계열사인 유한메디카 대표로 재직해왔다.

<화학저널 2005/08/09>